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려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알 림

- 오늘은 헌미헌금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9월 25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9월 21일(수) 11시 경로당 월례 미사가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회 의

- 사목협의회
 - 일 시 : 9월 22일(목), 19시 40분
 - 장 소 : 강 당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울뜨레아	9월 18일(일), 11시 40분	강 당
1Cu	9월 18일(일), 12시	식 당
2Cu	9월 18일(일), 14시	강 당
3Cu	9월 18일(일), 13시	강 당
성체분배자회	9월 25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 조배실

● 예비신자 교리반 첫 모임

- 일 시 : 9월 18일(일), 11시 45분
- 장 소 : 1교실

● 교 육 / 강 좌

- 매주 목요일 10시 40분 시니어 아카데미가 강당에서 있습니다.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12시 미사 성가대원 모집

- 12시 미사에서 성가 봉사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권용란 세레나 010-9396-1397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8월 31일 현재 ₩12,870,000 납부되었습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9/25)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0월 예정	청 소	2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9월 7일 ~ 9월 13일)

• 교 무 금		6,881,000원
• 주일헌금		4,115,700원
• 감사헌금	강성주10만원	오광봉 7만원
	이준식50만원	김중순 5만원
	양옥순 5만원	김시아 5만원
	김기에 5만원	현은순10만원
		송명순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9/18	이인옥	신종구 최상림	안상록 정재경
9/25	권태희	조홍환 김진수	장익근 정연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9/18	박승환	오광운	김광수	김영배
9/25	박용환	이화봉	최석준	이운영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09. 이와 달리, 오늘날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본 인권에 대하여 그동안 침묵하고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의 ‘합의’도 이끌어 낸다면, 권력자들이 기본 인권을 부인해 버리는 일은 일어날리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 맺은 단순 합의도 마찬가지로 조작될 수 있기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선에 대하여 풍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파괴 능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무관심하고 무정한 개인주의는 일시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드높은 가치들을 추구하는 데에서 태만한 결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상대주의에는, 힘 있는 자나 아주 능력 있는 자가 진리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요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내재적 악을 금하는 윤리 규범 앞에서는 그 어떤 특권도 예외도 없습니다. 제아무리 세계적인 인물이든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든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윤리적 요구 앞에서 우리는 모두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210. 오늘날, 윤리와 정치를 물리학으로 환원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왜곡되고 공허한 논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선과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득실을 따지는 계산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윤리 이성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결과, 법은 더 이상 정의의 근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적 개념들을 비추는 거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퇴보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곧 피상적이고 타협적인 합의를 통하여 ‘하향평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힘의 논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합의와 진리

211. 다원주의 사회에서 대화는, 임의적 합의를 뛰어넘어 언제나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러 명분과 합리적 논쟁, 다양한 전망, 다양한 지식과 관점의 기여를 통하여 풍성해지고 깨우쳐야 하는 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대화는,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옹호해야 하는 몇 가지 근본 진리에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인식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은 일부 영속적 가치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 윤리에 견고성과 안정성을 부여해 줍니다.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가치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였을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근본 가치들이 모든 합의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들을 우리의 구체적 상황을 초월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근본 가치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증진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합의는 역동적 실재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 가치들은 그 본질적 의미에 힘입어 그 자체로 영구한 것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